

러시아어 미래시제의 상형태 빈도수: 어휘 의미와의 상호 연관성

이 주 흥*

- 개요 -

러시아어 동사가 문법범주로 지니고 있는 상과 시제는 특별히 서로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미래시제에서는 동사의 상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다른 형태가 존재하는데, 이 서로 다른 두 형태의 의미적 차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어의 구체적인 코퍼스(corpus)에서의 두 형태적 차이에 따른 빈도수에 대한 연구나 이 두 형태의 기능적 특성에 따른 빈도수에 대한 통계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미래시제의 상 형태의 쓰임에 있어 어휘 의미적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국가 코퍼스에서 구체적인 어휘그룹에 따른 러시아어 동사들의 미래시제의 상 형태에 대한 빈도수 조사를 통해 미래시제의 상과 시제의 연관성에 대한 통계적인 접근을 해보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미래시제에서는 완료상 동사로 이루어진 단순미래 형태가 불완료상 동사로 이루어진 복합미래 형태보다 확연하게 더 많은 빈도수를 나타낸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사건성과 순간성의 의미가 부각되는 어휘그룹의 동사들이, 미래시제의 양상적 특성과 러시아어의 상적 속성 때문에 완료상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 제 어: 러시아어, 동사의 상, 미래시제, 코퍼스, 어휘 의미, 상호작용

* 성균관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강사.

1. 들어가며

러시아어 동사가 문법범주로 지니고 있는 상(вид), 시제(время), 서법(наклонение) 사이의 상호 연관성은 전통 문법(Виноградов 1972,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1980)뿐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Храковский 1990; Хонг Тэк-Гю 2003; Маслов 2004; Клобуков 2009)에 의해서도 연구되어 왔다. 이들 사이에서도 특히, 발화시점에 준해 사건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으로 구분하는 시제와, 발화시점과 상관없이 사건이 이 시간상 어떻게 전개되고 분포되는지를 기술해 주는 상은 특별히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러시아어에 상과 시제의 상호관계에 따라 네 가지의 시제형태 - 완료상과 불완료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과거시제 형태, 불완료상으로만 이루어진 하나의 현재시제 형태 그리고 불완료상과 완료상 각각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복합미래와 단순미래의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진 미래시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РГ-1980). 특히 미래시제에서는 동사의 상에 따라 상징적인 의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도 다르게 존재하고 있기에, 미래시제에서 상에 따른 다른 두 형태의 의미적 차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Исаченко 1960: 444; Рассудова 1968: 72-73; Бондарко 1971: 90-103; Виноградов 1972: 436-448).

하지만 러시아어의 구체적인 코퍼스(corpus)에서의 두 형태적 차이에 따른 빈도수에 대한 연구나 이 두 형태의 형태적 특성에 따른 빈도수에 대한 통계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러시아 국가 코퍼스(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пу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이하 НКРЯ)¹⁾에서 구체적인 러시아어 동사들의 미래시제의 상형태에 따른 빈도수 조사를 통해 미래시제의 상과 시제의 연관성에 대한 통계적인 접근을 해보고자 한다.

미래시제는, 양상과 시제 범주 사이의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다고 주장한 Арутюнова(2011: 11)의 견해처럼 항상 양상적 의미와 상호작용을 할 수 밖에 없고, 또한 러시아어의 상은 “상의미와 어휘의미가 동사어간에 하나로 결합된 채 표현된다”(Гловинская 1982: 37)는 Гловинская의 주장과 같이 각각의 동사어휘와 함께 나타나기에, 미래시제에서 상과 어휘적 의미와의 포괄적인 연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1) <http://www.ruscorpora.ru>를 참조하였다(검색일: 2018.07.13).

에서는 미래시제에서 상과 어휘적 의미와의 포괄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시제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동사들의 특정한 어휘적 의미들이 실제로 시제 형태를 통해 나타나는 상의미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코퍼스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²⁾.

2. 러시아어의 문법적 상과 어휘적 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러시아어의 어휘적 상(lexical aspect)과 문법적 상(완료상, 불완료상)의 상호관계에 대한 주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어온 바 있으며(Булыгина 1982; Brecht 1985; Mehlig H. 1985; Падучева 2010), 이 중에서 특히 Brecht (1985)와 Падучева(2010)의 연구는 동사의 상적 의미의 특성을 고려한 Vendler (1967)의 동사 분류와 연관되어 있다.

벤들러는 동사의 상적 의미를 동사의 어휘가 표현하고 있는 행위적 특성에 의해 상태(state), 행위(activity), 완수(accomplishment), 도달(achievement)로 분류한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어의 경우, 동사가 표현하는 고유의 행위적 특성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문법적 상의 형태에 따라서도 동사의 행위적 특성이 다르게 표현되기도 한다. 즉, 같은 어휘의 동사가 완료상 형태인지 불완료상 형태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사의 행위적 특성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 (예1) a. Иван обезвреживал минное поле.
이반은 지뢰밭을 제거하고 있었다. (행위)
b. Иван обезвредил минное поле.
이반은 지뢰밭을 제거했다. (완수)

위의 (예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어휘지만 불완료상 형태일 때는 행위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반면, 완료상은 완수 의미를 나타낸다. 반면, 영어에서는 동일한 어휘가 행위도 완수도 나타낼 수 있다³⁾. 따라서 러시아어의 경

2) 본 논문의 뒷부분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Петрухина(2016)는 행위가 과정적으로 발전되는 것에 대한 제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사들은 미래시제에서 완료상의 사용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실제 코퍼스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우 동사의 어휘적 상은 어휘의 의미뿐 아니라 반드시 문법적 상의 형태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Brecht 1985).

한편, (예2)의 경우처럼 러시아어에서는 동사의 주어가 행위주(agency)인지 비행위주인지에 따라서도 동사의 상적 의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Падучева 2004: 195; 조남신 외 2016).

- (예2) a. Человек стучит в окно.
어떤 사람이 창문을 두드린다. (행위, действие)
- b. Дождь стучит в окно.
비가 창문을 두드린다. (비한계적 과정, процесс)
- c. Машинист увеличил скорость.
기관사가 속도를 높였다. (행위, действие)
- d. Возникшее чувство вины увеличило ее страдания.
떠오른 죄책감은 그녀의 괴로움을 가중시켰다.
(순간적 발생, происшествие)

따라서 Падучева(2004; 2010)는 동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행위적 특성의 상적 의미 외에 행위자성(агентивность)까지 고려해서 벤들리의 분류를 정적 상황(статические), 비한계적 행위(нетерминативные деятельности), 비한계적 과정(непредельные процессы), 일반적 행위(дейсвия обычные), 한계적 행위(действия предельные), 완수(действия с акцентом на результате), 순간적 발생(происшествие)으로 한번 더 하위분류를 했는데, 송해정(2005)은 이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러시아어의 개별 동사들을 상의 형태와 연관시켜 상의 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행위 양상에 의한 상의 쌍만 가능한 경우, 완료상 형태와 불완료상 형태가 서로 상의 쌍을 이룰 수 있는 경우로 분류했다.

상의 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정적상황을 나타내는 동사들이다. 정적상황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주로 존재와 소유, 감성상태를 의미하는 동사들(существовать, принадлежать, любить, хотеть, ...)로 이들 동사들은 완료상 형태의

- 3) 예를 들어, 같은 draw라는 동사라도 “He draws.”라는 문장에서는 “그는 그리고 있다”는 행위 의미가 되지만 여기에 목적어가 더해져서 “He draws a circle.”이라는 문장에서는 완수의 의미가 된다. 벤들리는 영어를 중심으로 상적 의미를 구분했기 때문에 이를 러시아어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러시아어 동사들의 상적 의미 구분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언급할 예정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분법에 대해서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짜를 갖지 않아 상의 쌍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위 양상에 의한 상의 쌍만 가능한 경우에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들과 비한계적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속한다.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주로 다양한 인간 행위와 관련된 동사(гулять, играть, работать, ...)이며 이들은 동일한 어휘의미 안에서 시간 국면상 내격 경계를 부여함으로 완료상이 되는 상적 파생만 가능하다⁴⁾. 비한계적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들(кипеть, светить, течь, шуметь, ...) 또한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들과 같이, 동일한 어휘의미 안에서 시간 국면상 내격 경계를 부여함으로 완료상이 되는 상적 파생만 가능하다⁵⁾.

완료상 형태와 불완료상 형태가 서로 상의 쌍을 이룰 수 있는 경우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순간적 발생을 나타내는 동사들이다. 그리고 Падучева (2010: 95)와 Зализняк & Шмелев(2000: 56)가 분류한 반복 상 쌍(тривиальные пары)을 이루는 동사들⁶⁾도 여기에 속한다.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주로 일반적인 행위동사(открывать-открыть, строить-построить, ...)이며, 불완료상 형태는 한계에 도달하는 과정 또는 발달중인 과정을 의미하고 완료상 형태는 한계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동사들이 이루는 상의 쌍을 전통문법에서는 한계쌍(предельные пары)으로 정의하고 있다. 순간적 발생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과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순간을 의미하는 동사들이다. 이들 동사들에는 발화동사(глаголы речи), 지각동사(глаголы чувственного восприятия)를 포함한 여러 수행동사(перформативные глаголы)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의 경우 완료상 형태는 그 동사가 의미하는 행위로의 즉각적인 이동을 의미하고, 불완료상 형태는 그 이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불완료상 형태의 동사가 완료상 형태가 표현하는 사건의 발생순

4) 이는 동일한 어휘적 의미이기에 파생은 아니지만 행위양상에 의한 상적 파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погулять, побеседовать 등은 ‘잠시’, ‘한동안’이라는 행위 내적 경계 표현에 의해 ‘완성된’ 행위를 의미하게 되므로 완료상이 될 수 있다(송해정 2005: 98).

5) 예를 들어 кипеть(끓다)-закипеть(끓기 시작하다), шуметь(소음이 나다)-прошуметь(소음이 한동안 일어나다) 등의 쌍.

6) 반복 상 쌍을 이루는 동사들은, 불완료상 동사가 자신과 상의 쌍을 이루는 완료상 동사의 의미와 비교해서 어떠한 새로운 의미도 가지지 않는 동사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съесть는 съест와 비교했을 때 съесть가 지니고 있는 완료의미의 반복 외에는 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이 동사들은 본 논문의 3장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간으로 이끄는 징후나 상태를 의미하는 경향(тенденция)의미의 동사들⁷⁾도 여기에 포함된다.

3. 러시아어 어휘그룹에 따른 상, 시제에 대한 빈도조사

러시아어 미래시제에서의 상에 따른 두 형태의 빈도수에 대한 연구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러시아어 전체 시제에서 상형태에 따른 빈도수에 대한 통계를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Штейнфельт(1963) 빈도사전에 의하면 러시아어 전체 시제에서 동사의 상에 따른 빈도수는 거의 같은 수를 차지한다: 불완료상 52.8%, 완료상 47%. НКРЯ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표 1>).

<표1> 러시아어 전체 시제에서 동사의 상에 따른 빈도수(НКРЯ)

	불완료상 동사	완료상 동사
빈도수	28,563,260 (55.01%)	23,358,743 (44.99%)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불완료상 동사의 빈도수가 완료상 동사의 빈도수보다 높다. 하지만 Штейнфельт 빈도사전이나 위의 <표 1>의 결과는 불완료상만이 사용되는 현재시제를 포함한 전체시제의 빈도에 대한 통계이므로, 현재에서 사용되지 않는 완료상이 다른 시제에서 더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한 <표 1>의 경우 부정형 동사들까지도 포함한 수치이다. 따라서 과거시제 또는 미래시제의 정형동사에서의 완료상과 불완료상 형태의 빈도수 비율에 대해서는 각각 따로 조사가 필요할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조사해 보았다(<표 2>).

<표 2> 러시아어 미래시제 정형동사의 상에 따른 빈도수(НКРЯ)

	불완료상 동사	완료상 동사
과거시제 빈도수	11,135,625 (53.8%)	9,560,906 (46.2%)
미래시제 빈도수	206, 429 (7%)	2,739,101 (93%)

7) 이 동사들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3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과거시제에 비해 미래시제에서의 완료상 형태와 불완료상 형태에 따른 빈도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며, 기존의 연구들에서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앞서 서론에서 미래시제는 양상적 의미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미래시제는 이미 지나간 사건에 대한 묘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 사건의 묘사에서는 사건성(eventuality)과 순간성(punctiveness)의 의미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⁸⁾. 이는 실제 언어 사용에서 완료상을 선호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⁹⁾. Петрухина(2016)도 미래시제에서 순간적인 행위는 항상 하나의 단일한 사실(единичный факт)로 인지되며, 따라서 행위가 과정적으로 발전되는 것에 대한 제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사들, 예를 들어 반복 상 쌍 동사들은 미래시제에서 완료상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사건성과 순간성의 의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동사들을 포함해서 여러 의미를 지닌 동사들의 미래시제에서의 상선택 빈도수를 실제 코퍼스 속에서 조사해 봄으로 앞서 언급한 추측과 페트루히나의 주장을 확인해 보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닌 동사들이 미래시제에서 완료상 또는 불완료상을 선택하는 빈도수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미에 따른 어휘 그룹들을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러시아어에서 동사의 쌍을 이룰 수 있는 다섯 개의 동사의 그룹(행위 의미 동사의 상 쌍, 화행동사의 상 쌍, 지각동사의 상 쌍,

8) 여기서의 순간성은, 시작에서 끝에 이르는 주어진 행위의 전 과정을 균질하게 압축하는 방식으로 내적 한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이나 끝점 이 둘 중의 어느 한 지점에 초점을 맞춰 내적 한계를 설정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홍택규 2013: 464). 예를 들어 “Я закончу эту работу(나는 이 일을 끝낼 것이다).” 같은 문장에서, 화자는 미래에 일을 끝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의 끝점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9) 홍택규(2013: 487)는 “At sunrise I walked eastward.”라는 문장이 “Когда солнце встало, я пошёл на восток.”와 같이, 행위의 시작을 표현하는 접두사 в-, по-가 부착된 완료상 동사들로 번역된다는 Падучева(2010: 364)의 예문을 통해서 러시아어의 동사 상은 영어와 같은 ‘한계상(delimitative)’의 방식보다는 ‘순간상(punctive)’의 방식을 선호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주장에 따른다면 이러한 추측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경향 의미 동사의 상 쌍, 반복상 쌍을 이루는 동사)을 상정한 뒤 총 50쌍 100개 동사들을 그룹별로 분류해, НКРЯ에서의 시제 형태에 따른 총 빈도수¹⁰⁾를 조사해 보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동사들은 송해정(2005), 조남신·박수빈(2016), Падучева(2010), Зализняк & Шмелев(2000)에서 본 연구에서 상정한 의미그룹에 해당한다고 제시되어 있는 동사들을 선택하였으며, 이들 동사들의 출처는 각주에서 각각 상세하게 밝혔다.¹¹⁾

이번 연구에서 어휘그룹을 선정하는데 있어 처음에는, 어휘가 가지고 있는 상 의미에 따라 그룹을 나눈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벤들러의 어휘그룹 - 상태, 행위, 완수, 도달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러시아어의 경우 동사가 전체적으로 그의 어떤 부류에 상응하지 않고 상 형태만이 개별적으로 상응한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한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어의 경우 동사 어휘가 표현하는 고유의 행위적 특성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문법적상의 형태에 따라서도 동사의 상적 의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는 불가능했다. 대신에 먼저 형태적으로 미래시제에서 상의 쌍을 이룰 수 있는 동사들, 즉 두 가지 상형태가 모두 나타날 수 있는 동사들을 동사 어휘 의미적으로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서 빈도수 조사를 실시했다. 다섯 그룹으로 나눈 근거는 먼저 도달의 의미가 표현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도달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순간적인 행위는 미래시제의 완료상 사용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Петрухина(2016)의 주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10) 여기서의 총 빈도수는 어느 동사를 기준으로 НКРЯ 속에서 그 동사의 주어진 시제 형태(완료상 과거시제 형태, 불완료상 과거시제 형태, 복합미래시제 형태, 단순 미래시제 형태)가 나타나는 총 빈도수를 의미한다. 단, 서법은 직설법으로 한정하였고 형동사와 부동사는 제외시켰다. НКРЯ의 경우 완료상 과거시제, 불완료상 과거시제, 현재시제, 단순 미래시제 형태는 시스템에서 지정해서 빈도수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복합미래시제 형태는 быть 동사의 인칭/수 활용형 다음에 두 단어의 간격을 두고 나오는 불완료상 동사의 원형 형태의 빈도수를 조사했다.

11) 이러한 연구들에서 표본 동사를 추출한 이유는 본 연구자 임의로 동사들을 의미 그룹에 분류하기 보다는 상에 대해 연구를 해온 선행 연구자들의 분류에 따르는 것이 더 신뢰도가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며 하나의 연구에서만 동사들을 추출하지 않고 여러 연구들에서 추출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각각의 의미그룹에 포함되는 동사들을 10개 이상 제시한 하나의 온전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미그룹의 분류의 기반은 Падучева(2010)와 송해정(2005)의 연구를 참고했고 되도록 이들 연구에서 동사들을 가져왔으며, 그 외에는 Зализняк & Шмелев(2000)와 조남신·박수빈(2016)의 연구에서 동사들을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1그룹은 도달의 의미가 표현될 수 없는 동사들인데, 러시아어의 경우 이들은 불완료상 형태일 때는 벤들러의 행위의 의미가 나타나고 완료상 형태일 때는 완수의 의미가 나타난다. 이 동사들의 어휘적인 의미가 사람이 하는 일반적 행위를 나타내기에 이 그룹을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들’로 칭했다. 2그룹부터 5그룹까지는 도달의 의미가 표현될 수 있는 동사들을 분류한 것인데, 도달의 의미가 표현된 의미 그룹이라도 상의 선택에 따라 도달의 의미가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기에 이들을 따로 분리했다. 2그룹 화행동사와 3그룹 감정, 지각동사의 경우, 완료상형태는 그 동사가 의미하는 행위로의 즉각적 이동, 즉 도달의 의미를 표현하지만 불완료상 형태는 그 즉각적 이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그룹이다. 4그룹 경향 의미의 동사들은 완료상 형태는 2, 3그룹과 같이 도달의 의미를 표현하지만 불완료상 형태는 그 도달된 상태로 이끄는 징후나 상태를 의미하는 그룹이다. 마지막으로 5그룹 반복상 쌍 동사들은 완료상 형태는 도달의 의미를 표현하지만 불완료상 형태는 도달된 상태의 반복 외에는 다른 어떤 의미도 가지지 않는 동사들이다.

<표 3> 그룹1.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들¹²⁾

	과거시제	빈도수차이	미래시제	빈도수차이
открывать	4,404		108	
открыть	27,639	6.28	3,928	36.37
строить	5,130		515	
построить	5,656	1.10	1,311	2.55
выполнять	2,930		306	
выполнить	3,858	1.32	1,289	4.21
красить	655	2.75	22	
покрасить	238		73	3.32
пришивать	119		2	
пришить	313	2.63	227	113.5
доказывать	3,811		140	
доказать	4,611	1.21	2,279	16.28

12) 본 연구에서 이 그룹에 분류된 동사들 중에서 открывать, строить, выполнять, красить, пришивать, доказывать는 송해정(2005: 64)이 이 그룹에 해당한다고 밝힌 동사들이며, варить, рисовать, копать는 Падучева(2010: 91)가, 그리고 вставлять는 조남신·박수빈(2016: 79)이 이 그룹에 해당한다고 밝힌 동사이다.

варить	1,776	2.10	85	
сварить	844		497	5.85
рисовать	3,425	1.59	97	
нарисовать	2,153		497	5.12
копать	956	18.38	63	4.5
вскопать	52		14	
вставать	5,208		66	
встать	35,442	6.81	3,764	57.03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 그룹은, 전문문법에서 한계쌍(предельные пары)을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들이다. 이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예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완료상 형태는 한계에 도달하는 과정 또는 발달중인 과정을 의미하고 완료상 형태는 한계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한다.

- (예3) a. А братья Райт несколько лет строили свой биплан, чтоб пролететь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метров или ярдов.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몇 백 미터 또는 몇 백 야드를 날기 위해 자신의 비행기를 만들어 왔었다.
- b. Построили эту рыбачью лодку шесть тысяч лет назад.
이 고깃배는 6천년 전에 만들어졌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그룹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과거시제에서는 총 10쌍 중 4쌍(красить-покрасить, варить-сварить, рисовать-нарисовать, копать-вскопать)을 제외한 6쌍의 동사에서 완료상 형태가 불완료상 형태보다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시제와 달리 미래시제에서는 한 쌍의 동사(копать-вскопать)¹³⁾를 제외한 9쌍의 동사에서 완료상 형태가 불완료상 형태보다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래시제에서는 과거시제와 달리 4쌍의 동사(открыть-открыть, пришивать-пришить, доказывать-доказать, вставать-

13) Падучева(2010: 91)가 копать의 상의 쌍을 вскопать로 분류했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래시제의 두 형태의 빈도수 비교를 копать-вскопать 쌍을 가지고 조사했지만, копать는 вскопать에 비해 어휘적으로 좀 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동사 자체에 다회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엄밀한 의미의 상의 쌍이라면 오히려 вскапывать-вскопать가 더 정확할 것이라 사료된다.

встать)에서 두 형태의 빈도수 차이가 10배가 넘는다.

<표 4> 그룹 2. 화행동사¹⁴⁾

	과거시제	빈도수 차이	미래시제	빈도수 차이
благодарить	2,814	1.03	121	
поблагодарить	2,729		332	2.74
возражать	3,676		171	
возразить	10,837	2.95	460	2.69
разрешать	1,318		29	
разрешить	5,756	4.37	4,006	138.13
спрашивать	20,462		437	
спросить	141,176	6.89	9,208	21.07
звать	15,317	1.71	261	
позвать	8,957		2,182	8.36
сообщать	4,531		89	
сообщить	22,704	5.01	2,317	26.03
объявлять	1,435		19	
объявить	18,771	13.08	1,451	76.37
поздравлять	1,000		18	
поздравить	1,569	1.57	176	9.78
отвечать	50,996		851	
ответить	79,910	1.57	5,496	6.46
соглашаться	4,044		11	
согласиться	25,729	6.36	6,879	625.36

화행동사(speech act verbs)들은 화자가 발화행위 주체가 되어 언어로 진행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표현하는 동사들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그룹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과거시제에서 총 10쌍 중 한 쌍(звать-позвать)을 제외한 9쌍의 동사에서 완료상 형태가 불완료상 형태보다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미래시제에서는 10쌍의 동사 모두 완료상 형태가 불완료상 형태보다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과거시제에서는 불완료상 형태에 대한 완

14)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화행동사들은 Падучева(2010: 96)에서 추출한 것이다.

료상 형태의 빈도수의 차이가 단 한 쌍의 동사(объявлять-объявить)에서만 10배가 넘게 나타났음에 반해, 미래시제에서는 5쌍의 동사(разрешать-разрешить, спрашивать-спросить, сообщать-сообщить, объявлять-объявить, соглашаться-согласиться)에서 두 형태의 빈도수 차이가 10배가 넘는다. 여기에 더해, 미래시제에서는 불완료상 형태에 대한 완료상 형태의 빈도수의 차이가 50배가 넘는 경우도 3쌍(разрешать-разрешить, объявлять-объявить, соглашаться-согласиться) 존재한다.

<표 5> 그룹 3. 감정·지각동사¹⁵⁾

	과거시제	빈도수 차이	미래시제	빈도수 차이
видеть	109,050	1.68	727	
увидеть	64,819		26,173	36.01
слышать	40,648	2.03	127	
услышать	20,002		5,246	41.30
ощущать	4,494		71	
ощутить	4,598	1.02	411	5.79
смотреть	62,036	1.62	1,234	
посмотреть	38,309		17,914	14.52
нюхать	810		20	
понюхать	1,030	1.27	156	7.8
чувствовать	32,714	1.32	525	
почувствовать	24,845		1,997	3.80
волноваться	4,411	6.41	79	2.02
взволноваться	688		39	
радоваться	6,072		171	
обрадоваться	9,805	1.61	746	4.36
слушать	23,573	13.93	610	
послушать	1,692		1,816	2.98
грустить	480	11.70	22	2.44
взгрустнуть	41		9	

15)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감정·지각 동사들은 Падучева(2010: 96)에서 추출한 것이다. 그리고 파두체바는 이 동사들을 Маслов(1948: 312)에서 가져왔다.

감정·지각 동사들은 인간의 감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동사들로, 이들은 (예4)에서와 같이, 완료상 형태는 그 동사가 의미하는 행위로의 즉각적인 이동을 의미하고 불완료상 형태는 그 이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 (예4) a. Скоро ты его увидишь.
곧 너는 그를 보게 될 것이야.
b. Да, теперь я его вижу!
응, 지금 나는 그를 보고 있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그룹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과거시제에서는 총 10쌍 중 3쌍(ощущать-ощутить, нюхать-понюхать, радоваться-обрадоваться)의 동사들만이 완료상 형태가 불완료상 형태보다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미래시제에서는 10쌍 중 2쌍의 동사들(волноваться-взволноваться, грустить-взгрустнуть)¹⁶⁾만 제외하고 모두 완료상 형태가 불완료상 형태보다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과거시제에서는 불완료상 형태에 대한 완료상 형태의 빈도수의 차이가 10배가 넘게 나타나는 경우가 단 한 쌍도 없는 것에 비해, 미래시제에서는 3쌍의 동사(видеть-увидеть, слышать-услышать, смотреть-посмотреть)에서 두 형태의 빈도수 차이가 10배가 넘는다.

<표 6> 그룹 4. 경향 의미의 동사들¹⁷⁾

	과거시제	빈도수 차이	미래시제	빈도수 차이
отправляться	3,191		45	
отправиться	25,613	8.03	2,135	47.44
опаздывать	654		16	
опоздать	3,476	5.31	864	54
происходить	18,732		792	

- 16) 이 동사들은 감정의 상태와 느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동사들이기에 어휘 의미 자체가 어느 정도 과정 지향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미래시제에서도 완료상보다는 불완료상과 더 잘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는 동사들의 개수가 매우 적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사들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 17) 본 연구에서 이 그룹에 분류된 동사들 중에서 умирать만 Зализняк & Шмелев (2000: 54)에서 이 그룹에 해당한다고 밝힌 동사이며, 나머지 동사들은 Падучева (2010: 97)가 이 그룹에 해당한다고 밝힌 동사들이다.

произойти	38,264	2.04	4,855	6.13
успевать	3,171		22	
успеть	43,178	13.62	6,932	315.09
выигрывать	818		14	
выиграть	4,980	6.08	1,342	95.86
отпускать	2,265		37	
отпустить	7,283	3.21	3,339	90.24
догадываться	3,288		11	
догадаться	9,516	2.89	1,197	108.82
проигрывать	819		24	
проиграть	3,559	4.35	702	29.25
умирать	4,248		208	
умереть	36,233	8.52	10,101	48.56
додумываться	32		2	
додуматься	1,032	32.25	118	59

경향 의미의 동사들¹⁸⁾은 불완료상 형태의 동사가 완료상 형태가 표현하는 사건의 발생순간으로 이끄는 징후나 상태를 의미하는 경향(тенденция)을 나타내는 동사들로, 이들은 (예5)에서와 같이 완료상 형태는 그 동사가 의미하는 행위로의 즉각적인 이동을 의미하고 불완료상 형태는 그 순간적 이동에 선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5) a. Я сейчас опаздываю.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나 지금 지각할 것 같아.

b. Я уже опоздал.

나 이미 지각했어.

18) 경향 의미의 동사들에 대해서는 Forsyth(1970: 49)가 의도(conation), 경향(tendency)을 나타내는 동사 그룹 속에 포함시킨 바 있다. 본 연구에서 경향 의미의 동사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협소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동사들은,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완료상 동사가 의도의 의미보다는 완료상 형태가 표현하는 사건의 발생순간으로 이끄는 징후나 상태를 의미한다. 경향 의미의 동사라는 용어는 Зализняк & Шмелев(2000: 54)에서 따온 것이며, 이 동사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들의 연구를 참고 바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그룹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과거시제에서나 미래시제에서나 10쌍의 동사 모두 완료상 형태가 불완료상 형태보다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과거시제에서는 불완료상 형태에 대한 완료상 형태의 빈도수의 차이가 단 한 쌍의 동사(успевать-успеть)에서만 10배가 넘게 나타났다음에 반해, 미래시제에서는 한 쌍의 동사(происходить-произойти)를 제외하고 9쌍 동사 모두 빈도수 차이가 10배가 넘는다. 여기에 더해, 미래시제에서는 불완료상 형태에 대한 완료상 형태의 빈도수의 차이가 50배가 넘는 경우도 6쌍(опаздывать-опоздать, успевать-успеть, выигрывать-выиграть, отпускать-отпустить, догадываться-догадаться, додумываться-додуматься)이나 존재한다.

<표 7> 그룹 5. 반복 상 쌍 동사들¹⁹⁾

	과거시제	빈도수 차이	미래시제	빈도수차이
находить	12,029		106	
найти	56,993	4.74	20,852	196.72
приходить	24,270		394	
прийти	103,674	4.27	28,174	71.51
достигать	2,629	11.43	39	1.08
достичь	230		36	
случаться	9,804		13	
случиться	33,661	3.43	5,079	390.69
оказываться	5,711		50	
оказаться	99,021	17.34	10,123	202.46
узнавать	3,422		87	
узнать	43,896	12.83	20,537	236.05
промахиваться	70		1	
промахнуться	848	12.11	215	215
съедать	705		10	
съесть	5,794	8.22	2,777	277.70
выпивать	1,465		7	
выпить	12,906	8.81	5,194	742
прочитывать	435	2.53	5	
прочитать	172		11	2.20

19)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반복 상 쌍 동사들은 Зализняк & Шмелев(2000: 56)에서 추출한 것이다.

반복상 쌍 동사들²⁰⁾은 완료상과 불완료상의 상 대립에 의해 ‘단일성-반복성’ 의미 외의 다른 대조적인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동사들이다. 즉, 불완료상 동사가 완료상 동사가 지닌 도달의 의미의 반복 외에는 다른 뜻을 지니지 않는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그룹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과거시제에서 총 10쌍 중 2쌍의 동사(достигать-достигнуть, прочитывать-прочитать)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완료상 형태가 불완료상 형태보다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미래시제에서는 총 10쌍 중 한 쌍의 동사(достигать-достигнуть)²¹⁾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완료상 형태가 불완료상 형태보다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미래시제에서 불완료상 형태에 대한 완료상 형태의 빈도수의 차이가 100배가 넘는 경우가 7쌍(находить-найти, случаться-случиться, оказываться-оказаться, узнавать-узнать, промахиваться-промахнуться, съедать-съесть, выпивать-выпить)이나 된다.

4. 종합적인 결과분석 및 해석

위의 결과에서 전체적으로 첫 번째로 주목을 끄는 부분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총 50쌍의 동사들 중 4쌍(копать-вскопать, волноваться-взволноваться, грустить-взгрустнуть, достигать-достичь)을 제외한 모든 동사의 쌍에서 완료상 형태로 만들어지는 단순미래시제의 형태가 불완료상 형태로 만들어지는 복합미래시제 형태보다 더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빈도수의 차이는 과거시제 형태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과거시제에서는 불완료상 형태보다 완료상 형태의 빈도수가 더 높게 나타난 쌍들 중에서 그

20) 반복상 쌍 동사는 Зализняк & Шмелев(2000: 56)가 사용한 반복 상 쌍(тривиальные пары)에 해당하는 동사를 말한다. 이들 동사들은, 불완료상 동사가 상의 쌍을 이루는 완료상 동사의 의미와 비교해서 어떠한 새로운 의미도 가지지 않으므로, 흥택규(2016: 115)는 이들을 디폴트적 의미의 동사들이라 명명했다.

21) Kučera(1983: 171-184)는 достигать 동사를 도달중인 과정(end-in-sight, achievement in process)의 의미가 강조되는 동사로 분류하고 있다. 그의 분류에 따르면 이러한 의미의 동사는 미래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불완료상의 용례가 다른 동사군에 비해 많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는데, 이 역시 향후 보완된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빈도수의 차이가 10배 이상이 되는 쌍은 단지 6개의 쌍(объявлять-объявить, успевать-успеть, додумываться-додумать, оказываться-оказаться, узнавать-узнать, промахиваться-промахнуться)에 불과한데 비해, 미래시제에서는 불완료상 형태보다 완료상 형태의 빈도수가 더 높게 나타난 46개의 쌍 중에서 그 빈도수 차이가 10배 이상이 되는 쌍이 28쌍²²⁾이나 된다.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완료상 형태와 불완료상 형태의 사용빈도수가 어휘 의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러한 빈도수의 차이는 과거시제에 비해 미래시제에서 현저하게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여러 그룹들 중에서 경향 의미의 동사들의 경우, 앞서 3장에서 확인한 바대로 미래시제에서 10쌍 중 한 쌍의 동사만 제외하고 9쌍의 동사들 모두 빈도수 차이가 10배가 넘었으며, 50배가 넘는 경우도 6쌍이나 존재했다. 마찬가지로, 반복상 쌍 동사들의 경우에서도, 10쌍 중 두 쌍을 제외한 8쌍의 동사들이 미래시제 형태에서 완료상 동사의 빈도수가 불완료상 동사의 빈도수보다 5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앞서 3장 초반부에서, 미래시제는 이미 지나간 사건에 대한 묘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 사건의 묘사에서는 사건성과 순간성의 의미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실제 언어 사용에서 완료상을 선호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가설을 제시했었는데, 실제로 위에 언급한 경향 의미의 동사들이나 반복상 쌍의 동사들은 사건성과 순간성의 의미가 다른 동사들에 비해 어휘적으로 부각되어 있는 동사들이다. 따라서 비록 한정적이고 적은 수의 동사들이었기에 향후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코퍼스 조사를 통해 앞서 제시한 가설이 어느 정도는 확인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반복 상 쌍 동사들은 행위가 과정적으로 발전되는 것에 대한 제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미래시제에서 완료상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Петрухина(2016)의 주장도 어느 정도는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2) открывать-открыть, пришивать-пришить, доказывать-доказать, вставлять-вставить, разрешать-разрешить, спрашивать-спросить, сообщать-сообщить, объявлять-объявить, соглашаться-согласиться, видеть-увидеть, слышать-услышать, смотреть-посмотреть, отправляться-отправиться, опаздывать-опоздать, успевать-успеть, выигрывать-выиграть, отпускать-отпустить, догадываться-догадаться, проигрывать-проиграть, умирать-умереть, додумываться-додумать, находить-найти, приходиться-прийти, случаться-случиться, оказываться-оказаться, узнавать-узнать, промахиваться-промахнуться, съедать-съесть, выпивать-выпить.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같은 어휘그룹 안에서라도 어떤 동사들은 미래 시제에서 상에 따른 빈도수의 차이가 특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감정 또는 지각 동사들 그룹에서도 어느 정도 과정 지향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2쌍의 동사들(волноваться-взволноваться, грустить-взгрустнуть)에서는 불완료상 형태의 빈도수가 완료상 형태의 빈도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같은 반복상쌍 동사들 그룹에서 도달중인 과정(end-in-sight)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достигать-достигнуть)의 경우는 불완료상 형태가 완료상 형태보다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건성과 순간성이 두드러지는 같은 어휘 그룹 안에서, 미래시제에서 이처럼 각각의 어휘 의미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완료상의 용례가 다른 동사군에 비해 많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각주에서 언급한 것처럼 추후 연구에서 더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 사료된다.

비록 한정적이고 적은 수의 동사들을 가지고 한 연구였지만, 미래시제에서 사건성과 순간성이 강조되는 어휘가 완료상을 선호한다는 것과 동사들의 상의 선택에서 어휘적 의미도 많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들은 러시아어 동사 상이 ‘온전하게 문법화된’ 범주라기보다는 어휘-문법적 범주에 가깝다는 홍택규(2013: 487)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나오면서

러시아어 동사에서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는 동사의 상은 다른 문법범주와 달리 매우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그 선택에 있어서도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이 선택되는지 단순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며, 또한 앞서 언급한 바대로 한 동사 안에서 함께 나타나는 시제, 서법과의 관계 속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상호 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기에 많은 논쟁과 연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상과 시제와의 연관성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대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금도 중심 과제로 연구되고 있는 바이다.

여러 시제 중에서 특히 미래시제는, 화자 입장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므로 항상 양상의미 또는 어휘의미와의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Lyons 1977: 677-678; Арутюнова 2011: 6-1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래시제에서의 동사의 상, 어휘의미와의 상호작용을 러시아어의 코퍼스 속에서 구체적인 동사의 쓰임을 통해 나타나는 빈도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코퍼스에서 연구된 동사 그룹과 그에 따른 실제 동사들의 수가 소량으로 한정되어 있어 미진한 점이 있다. 하지만 미래시제에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사건성 또는 순간성 등의 어휘의미와 완료상의 상적인 의미와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고, 미래시제에서 순간적인 행위는 항상 하나의 단일한 사실로 인지되기 때문에 반복 상 쌍 동사들은 미래시제에서 완료상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Петрухина(2016)의 주장을 코퍼스 속에서 확인해본 것 또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사료된다.

분석의 엄밀성에 있어 본 논문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미래시제에서 같은 어휘 그룹 안에서도 동사의 어휘적 의미에 따라 크게 차이나는 불완료상 형태와 완료상 형태의 빈도수 차이는 러시아어 문법체계 안에서 상범주의 속성을 밝혀낼 수 있는 흥미로운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더 엄밀한 분석도구와 보완을 통해 심도 있게 연구해 볼 예정이다.

참고문헌

- 송해정(2005) 「상과 상황, 그리고 동사의 어휘적 의미」, 『노어노문학』, 제17권 제2호, 한국노어노문학회, 49-77쪽.
- _____ (2006) 「러시아어 동사 상은 분류범주인가 어형변화범주인가?」, 『슬라브학보』, 제21권 제3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5-50쪽.
- 이남경(2016) 「러시아어 미래시제의 문법화: 분석적 구조화를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제28권 제4호, 한국노어노문학회, 27-54쪽.
- 조남신·박수빈(2016) 「러시아어 동사의 의미 분류에 관한 재고」, 『슬라브어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슬라브학회, 73-86쪽.
- 홍택규(2013) 「러시아어 동사 상의 범주적 속성: 유형론적 관점과 문법화를 배경으로」, 『비교문화연구』, 제33권,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461-494쪽.
- _____ (2016) 「Анна А. Зализняк & А. Д. Шмелёв의 러시아어 상 기술방법론 검토: 중화와 사건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32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05-146쪽.
- Арутюнова, Н. Д.(1997) *Время: модели и метафоры. 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языка: Язык и время*, М.: Индрик.
- Бондарко, А. В.(1971) *Вид и время русского глагола*, М.: Просвещение.
- Булыгина, Т. В.(1982) “К построению типологии предикатов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Семантические типы предикатов*, М.: Наука, С. 7-85.
- Виноградов, В. В.(1972) *Русский язык. Грамматическое учение о слове*, М.: Высшая школа.
- Гловинская, М. Я.(1982) *Семантические типы видовых противопоставлений русского глагола*, М.: Наука.
- Зализняк, А. А. и А. Д. Шмелев(2000) *Введение в русскую аспектологию*, М.: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 Исаченко, А. В.(1960)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строй русского глагола в сопоставлении с словацким. Морфология, Часть 2*, Братислава: Изд. Словац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 Климонов, В. Д.(2006) “Влияние развития видов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словарного состав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Глагольные вид и лексикография*.

Семантика и структура славянского вида, Т. 4, Munchen: Verlag Otto Sagner, С. 169-191.

Клобуков, Е. В.(2009)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 под ред. П. А. Леканта, М.: Просвящение.

Маслов, Ю. С.(1948) “Вид и лекс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глагол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Известия АН СССР. Серия литературы и языка*, Т. 7, С. 303-316.

_____ (2004)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Аспектология. Общее языкознание*, М.: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Падучева, Е. В.(2004) “Таксономическая категория как параметр лексического значения глагола”, *Русский язык в научном освещении*, № 6, С. 192-216.

_____ (2010) *Семант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Семантика времени и вид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Семантика нарратива*, 2-е изд., М.: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Петрухина, Е. В.(2009) *Русский глагол: категории вида и времени (в контексте современных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М.: Филологический факультет МГУ.

_____ (2016) Непубликованный материал, Лекции для бакалавров 2-го курса рус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Морфолог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февраль-май, Филологический факультет МГУ.

Плунгян, В. А.(2003) *Общая морфология: Введение в проблематику,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М.: URSS.

Рассудова, О. П.(1968) *Употребление видов глагол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МГУ.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1980), Т. II, М.: Наука.

Штейнфельд, Э. А.(1963) *Частотный словарь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Таллин.

Хонг Тэк-Гю(2003) *Русский глагольный вид сквозь призму теории речевых актов*, М.: Индрик.

Храковский, В. С.(1990)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категорий глагола (опыт анализа)”, *Вопросы языкознания*, № 5, С. 18-36.

- Anderson, H.(2006) "Periphrastic futures in Slavic. Divergence and convergence," *Change in Verbal Systems. Issues in explanation*, Bern: Peter Lang, pp. 9-45.
- Braginsky, P.(2008) "Vendlerian Classes and the Russian Aspectual System," *Journal of Slavic Linguistics*, Vol. 16, No. 1, pp. 3-55.
- Brecht, R. D.(1985) "The form and function of aspect in Russian," *Issues in Russian morphosyntax*, Columbus OH: Slavica, pp. 9-34.
- Comrie, B.(1976)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5) *Ten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rsyth, J.(1970) *A Grammar of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čera, H.(1983) "A Semantic Model of Verbal Aspect," *American Contributions to the Ninth International Congress of Slavists*, Vol. 1: *Linguistics*, pp. 171-184.
- Lyons, J.(1977) *Semantics*,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hlig, H. R.(1985) "Semantics of sentence and semantics of aspect in Russian," *New in foreign linguistics*, Moscow: Progress, pp. 227-249.
- Vendler, Z.(1967) "Verbs and times," *Linguistics in Philosophy*, New York: Ithaca, pp. 97-109.
- Wierzbicka, A.(1988) *The semantics of grammar*, *Studies in Language Companion Series*, Vol. 18, Philadelphia: John Benjamins.

Abstract**Frequency of Russian Future Tense Forms According to Aspect and Lexical Meaning****Lee, Joo Hong***

In Russian language, aspect and tense, as distinct grammatical categories, are particularly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In particular, depending on the aspect, the future tense has two different forms.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the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forms. However, only a few statistical studies focus on the frequencies of occurrence of the two future tense forms in the Russian corpus. In addition, studies have rarely examined how lexical semantic factors work in using two forms of future tense. Therefore, in this study, we adopt a statistical approach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ture tense and aspect in Russian language by examining the frequencies of occurrence of the two future forms of Russian verbs according to the concrete vocabulary group in the national Russian corpus. Using these statistical data, we prove the hypothesis that Russian verbs meaning eventuality or punctuality prefer a perfective form in the future tense due to a modal characteristic of this tense and an aspectual feature of the perfective form.

Key words: Russian Future Tense, Aspect, Lexical Meaning, Interrelationship, Frequency, Corpus Linguistics

* Lecturer in the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ungkyunkwan University.

이 주 홍

성균관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강사. 성균관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석사 졸업.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러시아어의 미래시제: 상과 양상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 러시아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관심영역은 러시아어 동사의 시제와 상과 관련된 의미, 형태연구이다. 연구 논문으로는 「러시아어 상 범주의 도상성: 이중상 동사의 의사소통적 원형효과」가 있다.

Lee, Joo Hong

Lecturer in the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ungkyunkwan University. He majored in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ungkyunkwan University. He received Ph.D. in Russian Linguistics at Moscow State University. His doctorate thesis is “Future Tense in Russian Language: Interaction between Aspect and Modality.” His main research interests include semantical and morphological study related to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tense and the aspect of Russian verbs. His most recent article is “Iconicity of Russian Aspect Category: Communicative Prototype Effect of Biaspectual Verbs.”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18. 10. 1
논문심사일:	2018. 10. 15 ~ 2018. 10. 30
심사완료일:	2018. 10. 31